초록번호 05-3

제 목	국 문	SF-36을 이용한 신장이식인의 삶의 질 측정 - 대면조사법과 자기기입방법간의 비교 -
	영 문	Camparison of SF-36 between self-administration and interview administration for the follow-up patients of renal transplan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수현*, 박은철, 임종건, 김순일**, 이윤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영 문	Soohyon Kim, Eun-Cheol Park, Jonggun Lim, Soonil Kim, Yunhwan Le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Surger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임종건
발표 형식	구 연	발표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료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 또는 일반대중의 관점에서 건강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 SF-36(Short Form 36)을 이용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에서 추후 관리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법과 자기기입조사법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 두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타당한 조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SF-36은 36개의 짧은 형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강상태의 일반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건강정책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 후에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총 1,684명을 대상으로 이중에서 대면조사방법에 200명, 자기기입조사방법에 4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1998년 4월 17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실정에 맞게 번역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울러 응답환자의 의무기록자료와 신장이식 담당의사가 부여한 점수를 수집하였다. SF-36은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통증, 일반 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 건강, 건강상태의 변화의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있고, 9개 영역의 합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대면조사법과 자기기입조사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Cronbach의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를 비교하였으며,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임상전문의가 부여한 점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SF-36의 영역별 점수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두 방법에 대한 최종 응답자는 대면조사법이 113명중 98명(86.7%), 자기기입조사법이 218명중 164명(75.2%)으로 응답률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대면조사자가 평소에 진료에 관련이 있는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두 방법의 차이는 입원횟수($p<0.05$)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두 방법에 대한 설문서의 신뢰도는 대면조사법이 0.609 ~ 0.857, 자기기입조사법이 0.614 ~ 0.904로 자기기입조사법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울러 임상의가 부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 타당도 조사에서는 대면조사법의 상관계수가 0.139 ~ 0.411로 자기기입조사법의 0.041 ~ 0.2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통증, 일반건강, 감정적 역할 제한, SF-36 영역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F-36의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과 월수입, 전문의사가 부여한 점수, 입원횟수, 이식횟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조사방법간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신체적 기능, 통증, 사회적 기능의 영역이었으며, 대면조사법이 자기기입조사법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고찰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률을 제외하고는 두 조사방법간 SF-36의 영역별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 간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 alpha 계수도 두 방법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임상전문의사가 부여한 점수를 Gold Standard로 삼고 조사한 타당도에 있어서는 대면조사법이 자기기입조사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황하에서는 대면조사방법을 이용한 환자의 질 평가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장이식 환자의 이식전과 후의 삶의 질의 변화와 이식 기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변화등을 위한 연구에 자기기입조사법보다는 대면조사법에 의한 조사가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